

광주·전남 생산·소비 끝없는 추락

호남통계청 2월 산업동향...광주 생산지수 76.6, 전남 94.5 광주 건설수주액 큰폭 증가...지난해 수주액 한달 34억 영향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생산·소비가 동반 추락했다. 설비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앞으로 투자계획도 어둡다. 건설경기는 광주 수주액이 5555% 큰 폭으로 늘었다는 지표이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이 한달동안 34억원에 그친데 따른 증폭이라는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2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76.6%로, 전월보다 18.7% 급락했다. 전월 실적수 등 계절요인을 감안(89.6%)하더라도 9.3% 추락했다.

광주 생산지수는 2013년 9월 76.1% 이후 65개월만의 최저다.

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화학제품 -40.7%, 석유정제 -32.4%, 섬유제품 -25.4%, 식료품 -21.0%, 1차 금속 -20.9% 등을 보였다. 금속가공 32.4%, 비금속광물 30.8%, 농림 조립장선거 특수 등으로 인쇄 및 기록매체 생산이 24.3% 늘어난 것을 빼면 대부분 업종에서 생산이 줄었다.

출하지수도 79.1%로 전월보다 2.8% 하락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3.5%로 전년동월비 14.2% 하락했다. 백화점지수가 10.3%, 대형마트지수가 18% 감소했다. 이는 2017년 2월 대형소매점지수 82.3% 이후 2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남지역도 생산·소비 모두 하락, 체감

경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2월 전남 광공업 생산지수는 87%로, 전월(103.7%)보다 16.7% 하락했다. 계절조정(94.5%)을 하더라도 4.8% 감소했다. 생산지수도 94.5로 전월보다 전남지역 생산지수도 떨어졌다. 이는 2014년 2월 86.9%를 기록한 이후 6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이 -100%를 기록했고, 의약품 -89.3%, 기계장비 -79.5%로 생산이 급감했다.

출하지수는 이보다 더 떨어져 전월대비 -5.9%를 나타냈다. 소비지수는 84.7%로 전년동월비 -10.7% 줄어들었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올해 설비투자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동차 제조업체 70%가량은 올해 설비투자를 5~10%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는 설비투자 축소 이유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을 꼽았다.

생산·소비가 동반 추락하면서 투자계획에 엄두를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건설 수주액은 크게 늘었다.

올해 2월 광주 건설수주액은 1927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무려 5554.9% 폭증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 수주 증가로 399%가, 민간부문은 부동산 임대업 수주 증가로 1만8421% 늘었다. 오피스텔 수주 증가로 건축부문도 7026.9% 증가했다. 다만, 전문기사는 "5555%라는 기록적인 증가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건설수주액이 한달 동안 34억원에 그쳐 이같은 증가폭이 나왔다라는 것이다.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224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다. 지자체·공기업 수주 증가로 공공부문이 101.8% 증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신보, 지역 중기 5676억원 신규 보증

신용보증기금 호남 영업본부(본부장 송동근)는 올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5676억원의 신규보증을 포함한 총 2조5200억원의 보증 총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출기업과 창업기업에 각각 2767억원과 6843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전년동월 대비 무려 5554.9% 폭증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 수주 증가로 399%가, 민간부문은 부동산 임대업 수주 증가로 1만8421% 늘었다. 오피스텔 수주 증가로 건축부문도 7026.9% 증가했다. 다만, 전문기사는 "5555%라는 기록적인 증가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건설수주액이 한달 동안 34억원에 그쳐 이같은 증가폭이 나왔다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 해소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센터 등을 통해 1150개 기업에 1조 5300억원의 매출채권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보 호남영업본부는 호남지역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에 연간 148억원

(신보전체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광주 전남 1900여 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지역기반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수출 부진, 내수 위축 등으로 침체, 자동차 등 4차 산업기업에 3610억원, 고용창출기업에 197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광주 전남의 경제기반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동근 본부장은 "올해 초 신보는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으며, 일방 보증 기관에서 '중소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기관'으로 탈바꿈해 중소벤처기업을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장윤성 부부장 선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입 부부장으로 장윤성(53) 인천지역본부 부부장이 선임됐다.

장윤성 부부장은 인천 송도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연세대 법대 학위를 졸업했으며, 1993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울산지부장, 공공구매지원부장, 조합진흥실장, 조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장 부부장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시스템을 더 공고히 구축하겠다"며 "협동조합의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 지역경제와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관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31일 1979년 설립 이후 40년 만에 기관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진공의 설립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부로 격상됐고, 이로부터 체질까지 혁신기관으로 탈바꿈해 정부의 국정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벤처'를 기관명에 반영했다는 게 중진공 측의 설명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스마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윈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도 벤처 DNA를 심어 관행과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혁신하고 도전하는 벤처 정신으로 중소기업 민생현장을 보살피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85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	3등 보너스
11 17 28 30 33 35	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801,543,407	4
2 5개 숫자 + 보너스 일치	47,776,552	67
3 5개 숫자 일치	1,375,013	2,328
4 4개 숫자 일치	50,000	114,850
5 3개 숫자 일치	5,000	1,876,933

GM군산공장 폐쇄 10개월만에 새 주인 찾았다

車부품업체 컨소시엄이 인수 매각 대금 2000억 이룰 듯

폐쇄된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맞는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지난해 5월 폐쇄됐으니 10개월만이다.

지난 31일 자동차업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엠에스오토텍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지난 29일 비공개로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은 아니며 양측이 매각 조건에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매각 대금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엠에스오토텍 컨소시엄이 약 2000억원에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품 줄이기 '컵 속에 화장품' 한정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화장품 매장 '빌리프'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으로 화장품을 봉투 대신 컵 속에 넣어 판매하는 '더트루 크림 아쿠아밤' 제품을 한정으로 선보이고 있다. 화장품은 꺼내서 사용하고 포장재로 사용한 컵은 음료나 커피 등을 담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제 3~4곳과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생산라인 설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1년 반에서 2년 후에 본격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군산공장 생산라인은 도장 공정까지 갖췄기 때문에 기존 설비 활용

용도가 높아 전기차 생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를 이른바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과 연결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2월13일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뒤 5월 말 공장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2000여명의 공장 직원 가운데 1400명가량이 희망퇴직하고, 600여명이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 휴직 상태로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또 군산지역 협력업체 119곳 가운데 15곳이 휴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군산·박국석 기자 nogusu@연합뉴스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유기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